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 –

글로벌 자산배분

2025년 7월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하반기 미국 인플레 리스크, 분산 강화

미국 증시, 하반기 인플레 리스크
관세 인상 여파 본격 작동
연준 9월 금리인하 어려울 것

미국 주식 외로 분산 강화
미국 주식 비중축소, 글로벌 분산투자
중국 AI 바이오, 인도 비중확대

금 한국채 브라질국채
중앙은행들 금 비중확대 의향 강화
브라질국채 환 리스크 축소

박희찬 02-3774-1850 hcpark@miraeasset.com

Executive Summary

1) 반등한 미국 증시, 하반기 인플레 리스크에 주의

- 단기적으로, 6월에는 미국 증시가 많이 회복되었음. 관세 관련 낙관론과 더불어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부활한 영향이 컸음. 하지만, 하반기 미국 인플레는 관세 여파가 본격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띨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미국에서는 상품 물가가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전환되는 중.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4월부터 단행된 관세 인상 여파는 이르면 6월 물가지표에서 반영되기 시작할 것.
- 경제 외적 요인에 따라 인플레 상승하면서 하반기 미국 소비 둔화 리스크도 큼.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에 직면할 전망.

2) 미국외 주식에 대한 분산 전략 유지

- 인플레 재상승하면서 9월 연준 금리인하 기대도 줄어들 것.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하므로 비중축소 의견 유지.
- 대신, 인플레 부담이 제한된 가운데 금리인하 등 내수 부양책이 가동 중인 미국외 증시로 분산.
- 중국은 역사적 초저금리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것. 정책적 배려가 집중되는 AI 바이오 등 성장 스타일 주식 중심으로 비중확대.
- 인도 주식도 비중확대 의견 유지: 6월 50bp 금리인하 단행, 주식 밸류 부담 완화되고 IT 헬스케어 등 올해 성과 부진 섹터 주식 수익률 개선 전망.
- 한국 주식 중립 의견: 약달러 추세 및 정책 기대감 긍정적, 앞으로도 시장 분위기 그리 나쁘지 않을 듯. 다만, 원전 스테이블코인 등 일부 테마 주가 상승 과도해 보임.

3) 주식외 자산에서 금, 한국채, 그리고 브라질 국채 선호

- 미국채에 대한 절대 신뢰도 저하 속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비중 확대 의향이 강화되고 있음.
- 한국채는 단기 조정 진행됐으나 추세적 강세를 계속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브라질 채권은 절대 고금리 매력도가 환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 상황으로 판단됨.

자산배분 ETF포트폴리오

	종목명	테마 분류	AUM (USDmn)	수수료 (%)	수익률 (%)			배당수익 (%)	설명
					1M	3M	1Y		
Core (주식)	Vanguard Total World Stock	전세계 주식	48,187	0.06	3.8	10.4	13.6	1.86	전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ETF. 지역별로는 미국(65.1%), 유럽(15.2%), 신흥국(9.9%) 등.
Core (인컴)	iShares iBoxx $ Investment Grade Corp Bond	선진국 회사채	30,446	0.14	1.2	0.3	1.8	4.36	미국달러 표시 BBB 이상, 잔존만기 3년 이상인 회사채에 투자. 섹터별로 은행(23.6%), 필수 소비재(17.7%), 기술(11.5%) 등.
Satel -lite	Global X Hang Seng Tech	중국 테크	203	0.45	3.9	-0.5	50.8	-	중국 테크 관련 기업에 투자. 샤오미(8.6%), 텐센트(7.9%), 알리바바(7.7%) 등.
	Global X INDIA Active	인도	44	0.76	3.2	9.7	2.8	0.27	인도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HDFC 은행(9.1%), RELIANC GDR(8.6%), ICICI 은행(7.2%) 등.
	Global X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nology	AI 특화	3,639	0.68	7.6	19.2	21.7	0.22	빅테크 위주 AI 관련 기업에 투자. 텐센트(3.8%), 넷플릭스(3.8%), 삼성전자(3.4%) 등.
	Global X FDS Defense Tech	방산	2,801	0.5	3.8	27.1	78.6	0.40	글로벌 방산 관련 산업재 기업에 투자. 국가별로는 미국(51.3%), 영국(11.8%), 독일(10%), 프랑스(7.6%), 한국(6.9%) 등.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인프라 개발	8,629	0.47	5.2	15.8	18.0	0.51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에 투자. 산업별로는 자본재(63%), 소재(21.4%), 운송(8.8%) 등.
	VanEck Retail REITs	저가형 소비재	246	0.35	1.5	5.6	15.8	-	미국 저가형 소비재 기업 전반에 투자. 아마존(20.8%), 월마트(9.2%), 코스트코(8.6%) 등.
	Global X China Biotech	중국 바이오테크	55	0.68	6.3	12.7	46.4	-	중국 바이오테크 관련 기업에 투자.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14.1%), 야오밍바이오(9.2%), 항서제약(7.9%) 등.
	Global X Super Dividend REITs	고배당 리츠	186	0.58	1.5	-0.6	5.7	8.20	전세계 리츠 인덱스에 투자. 국가별로는 미국(68.2%), 싱가포르(16.3%), 홍콩(4.2%), 영국(3.9%) 등.
	Aberdeen Standard Physical Gold Shares	금	5,140	0.17	-0.8	4.6	40.4	-	금에 직접 투자하는 ETF.
Ref.	SPDR S&P500				4.3	9.9	13.0	1.15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미국 시간 6월 27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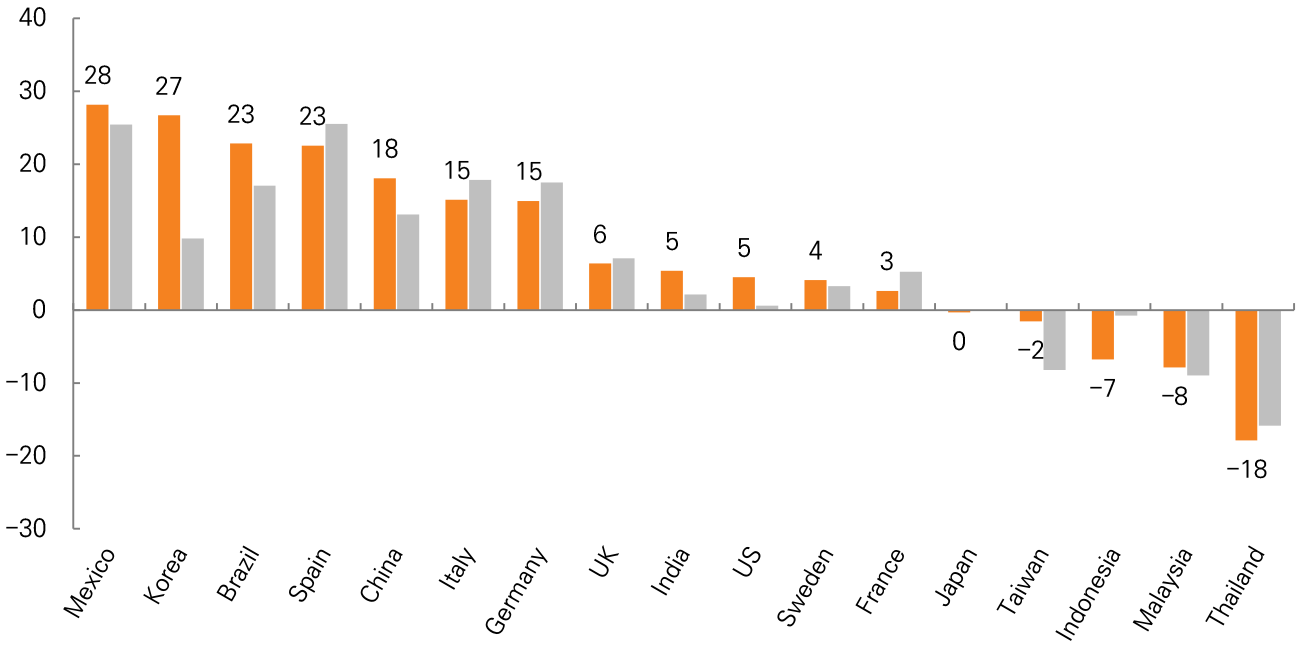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 로테이션 vs. 미국 증시 회복세

Non US 증시 내에서 로테이션: 유럽 → 신흥국

- 올해 미국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non US 증시가 괄목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였음.
- 연준은 금리인하를 멈췄지만 인플레 안정에 성과를 보인 대다수 국가들은 금리인하를 계속하는 등, 내수 부양 노력들이 전개되면서 주가도 좋은 성과를 보인 것.
- 6월에는 서유럽 증시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가운데 신흥국 증시 강세 지속: 한국 증시가 6.3 대선 이후 정책 기대감 등으로 예외적인 주가 급등세를 보였으며, 브라질, 중국 등 성과 개선.
- 미국도 관세 우려 완화, 금리인하 기대 상승, 그리고 AI 생태계 성장에 대한 신뢰 회복 등으로 주가 반등.

6월 글로벌 증시 전반적 조정 분위기, 한국 증시는 급등(6월 26일 기준, 5월 말과 비교)

2025년 연초 이후 국가별 주가지수 상승률 (%, MSCI 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오렌지색은 연초 이후 6월 26일까지, 회색은 연초 이후 5월 말까지 수익률을 표시

미국 증시 연 고점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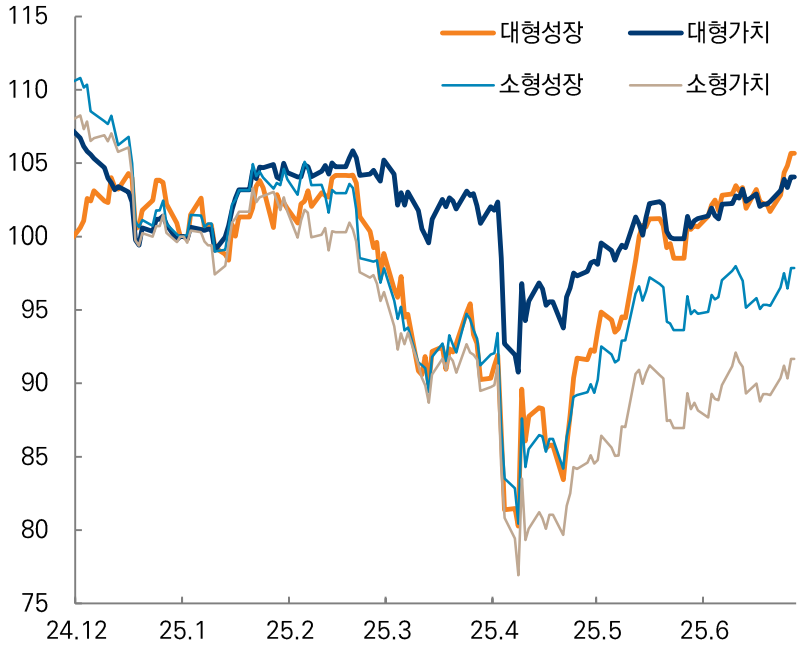
AI 생태계의 가파른 성장, 추락했던 대형성장주 회복

- AI 생태계 성장에 있어 엔비디아의 주도적 역할 지속, M7 기업들 중에서 올해 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메타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반면, 애플은 약세 기조, 알파벳도 연초 대비 마이너스 상승률.
- 테크 외로는 산업재, 유틸리티 섹터 성과가 최상위권, 이 또한 소형 원전이나 전력기기 등에서 AI발 수요 확대 수혜가 컸기 때문.
- 5월까지 성과 부진했던 IT는 6월에 큰 폭 개선. 통신서비스 에너지도 비슷. 반면 헬스케어, 경기민감소비재는 성과 부진 지속.

미국 대형성장주 성과 개선되면서 대형가치주 연간 수익률을 역전

(pt, 2025.1.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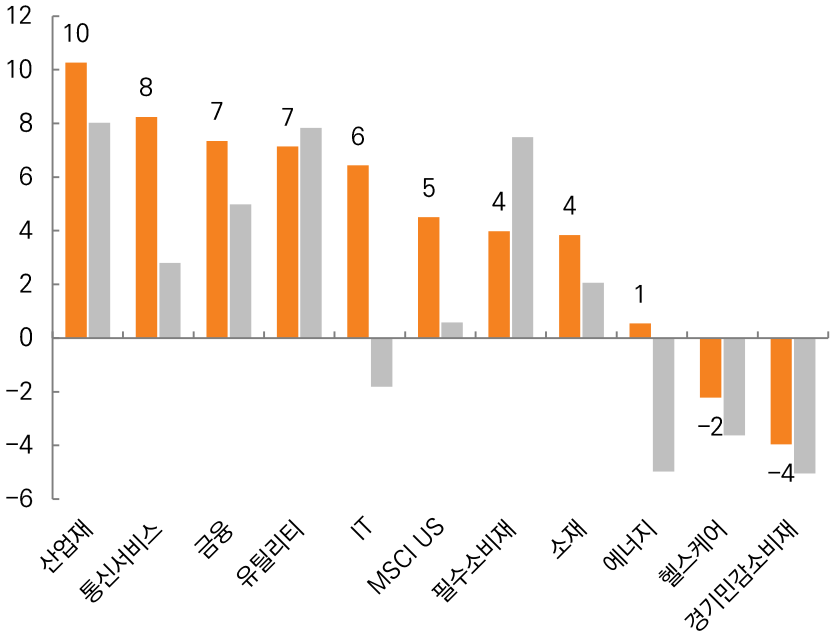
미국 스타일별 ETF 주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올해 최고 수익률은 산업재, 6월에는 IT, 통신서비스 수익률 큰 폭 상승

2025년 연초 이후 미국 섹터별 주가 상승률 (%, MSCI 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오렌지색은 연초 이후 6월 26일까지, 회색은 연초 이후 5월 말까지 수익률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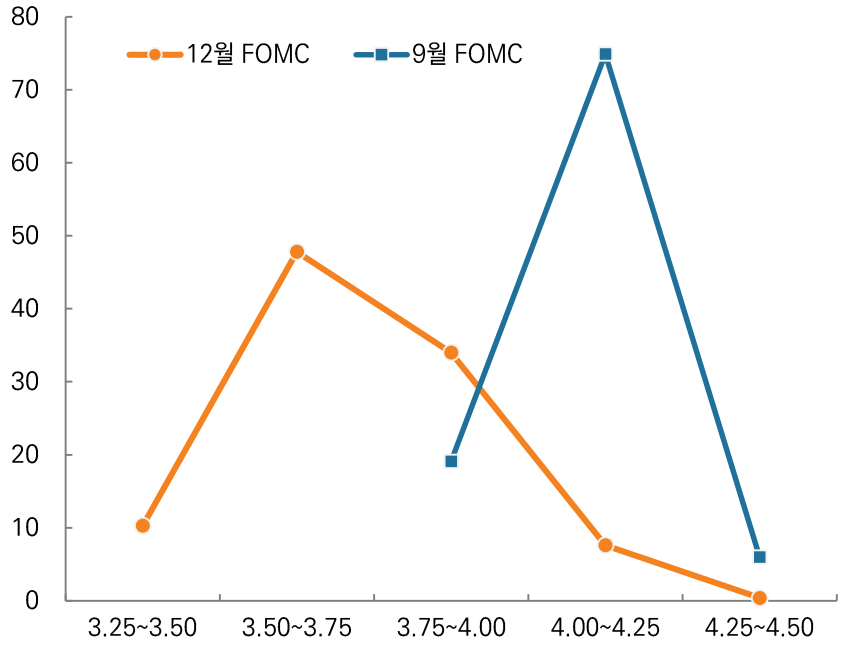
하지만 연준 금리인하 쉽지 않음

최근 주가 상승에 기여한 금리인하 기대는 3사분기에 후퇴할 전망

- 최근 경기지표 일부 악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및 연준 의장 교체 압박 등으로 연준 금리인하 기대 재상승.
- 하지만, 파월 의장 아니어도 FOMC 멤버들의 인플레 경계심리는 지난 3월간 한층 높아졌음. 6월 FOMC 점도표에서 과반수인 10명이 올해 2회 이상 금리인하를 지지했지만, 금리동결 의견도 눈에 띄게 증가(4명에서 7명으로).
- 아직 미국 인플레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으나, 관세 인상 여파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2~3개월 인플레 상황이 금리인하 기대를 재조정 시킬 가능성 높음. 장기 기대 인플레가 불안하다는 점도 연준 내 매파적 행보에 기여하는 중.

연준 금리에 대해 시장은 9월 인하 재개, 12월까지 총 2~3회 인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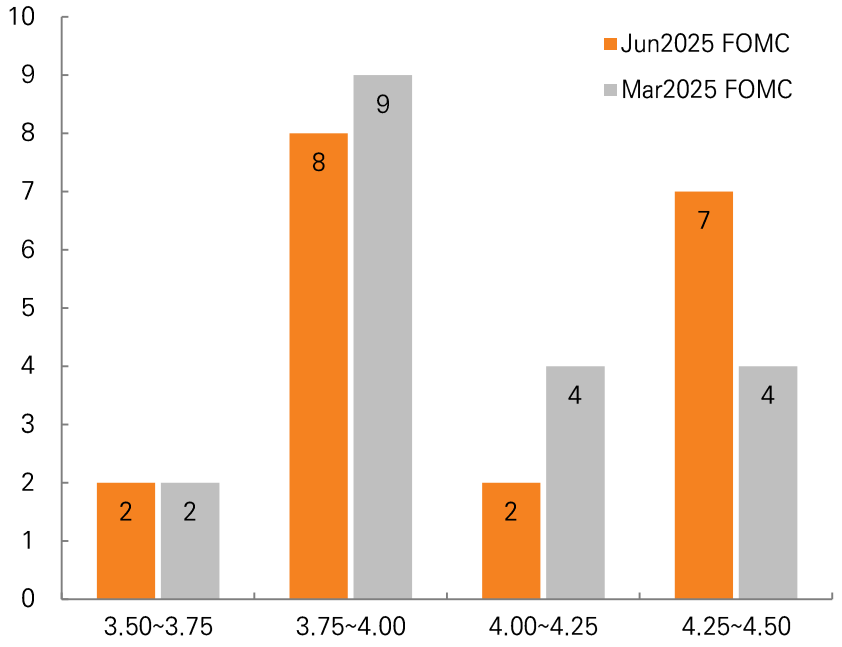
연준 기준금리 확률분포(%)



자료: CM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한국 시간 6월 27일 10시 30분 기준.

FOMC 멤버들 의견 대립 심화: 연말까지 2회 이상 인하 10명, 동결 7명

2025년 말 예상 기준금리 FOMC 멤버 분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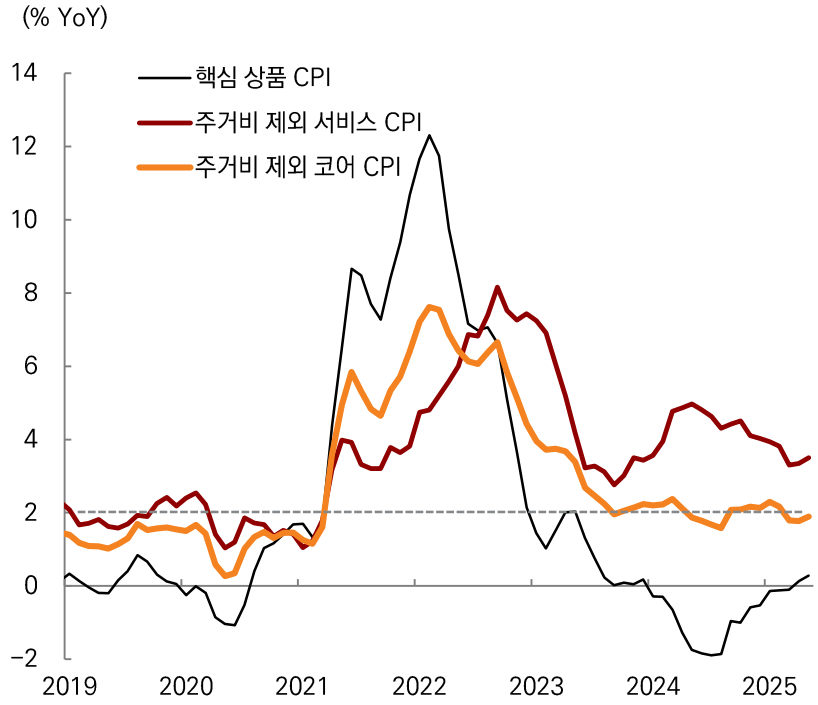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인플레 안정 유지 속 불안 조짐

상품 물가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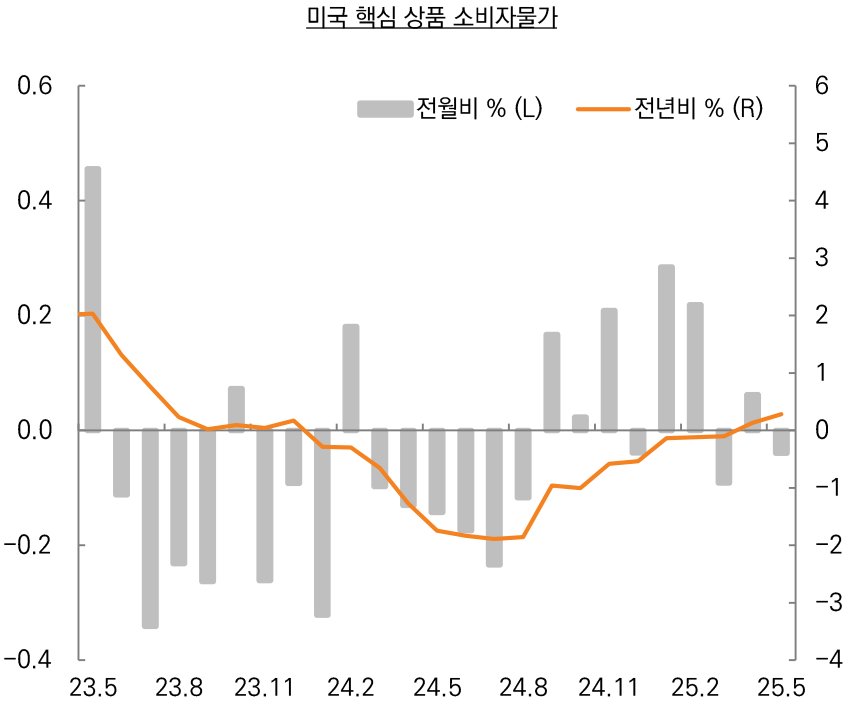
- 2022년 하반기 이후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에 있어서 상품물가 하락세가 크게 기여.
- 하지만, 지난 몇 개월간 상품물가의 전월비 상승 빈도가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전년비 상승률도 0% 위로 올라왔음.
- 6월부터 관세 인상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임. 그에 따라 상품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면서 전반적 인플레 상승을 압박할 전망. 내구재 생산자물가가 근래 오름세를 보이는 점도 상품 소비자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

미국 주거비 제외 코어 인플레는 지난 2년간 연 2% 수준 유지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코어 상품 물가 상승률 오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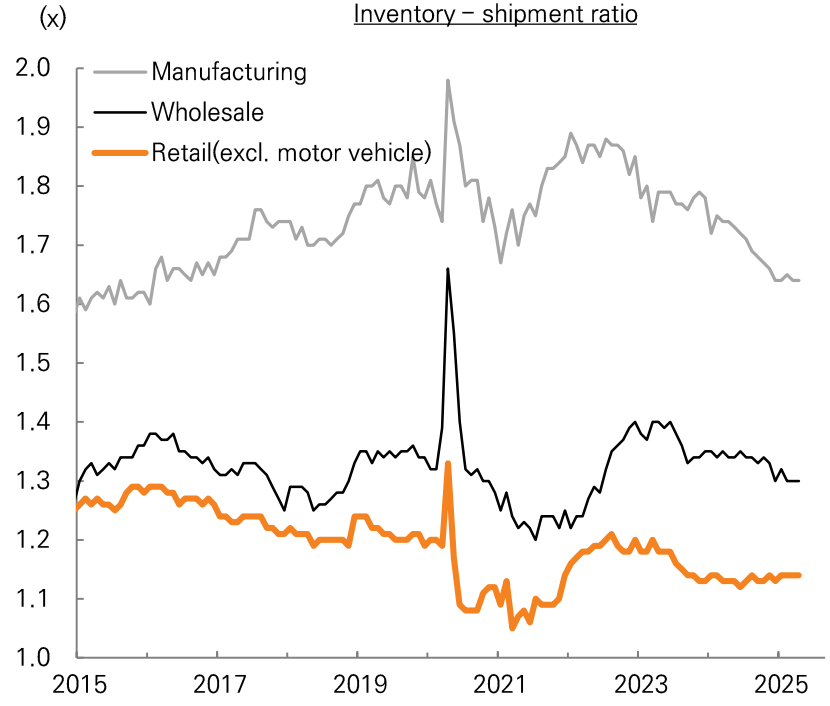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하반기 인플레 상승 예상

관세 인상 여파 나타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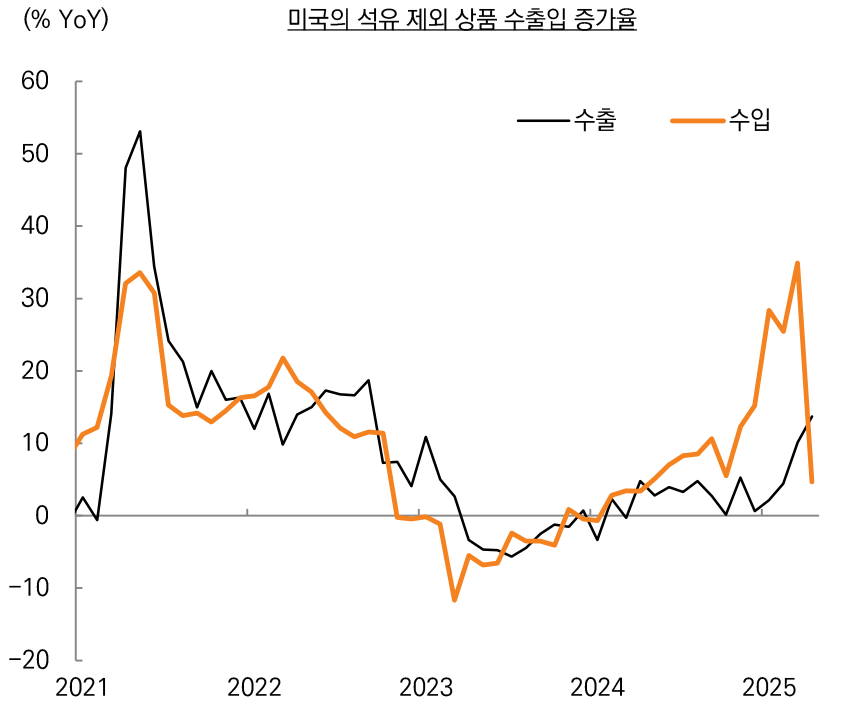
- 미국은 관세 인상 전 수입을 늘려서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2~3월 4개월간 대외수입액 증분 합계치는 반 달 치에 불과함.
- 미국의 재고 여력이 여유롭다고 볼 상황도 아님. 이런 상황에서, 4월 대외수입은 지난해 11월 이전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세 여파가 더 크게 반영되는 5월 수입액은 더 줄어들었을 것.
- 4월부터 인상된 관세는 6월부터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해 하반기에는 더 커질 전망. 하반기 인플레 상승으로 연준 금리인하 기대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 재고율 2023년 이후 하락 추세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4월 대외수입 증가율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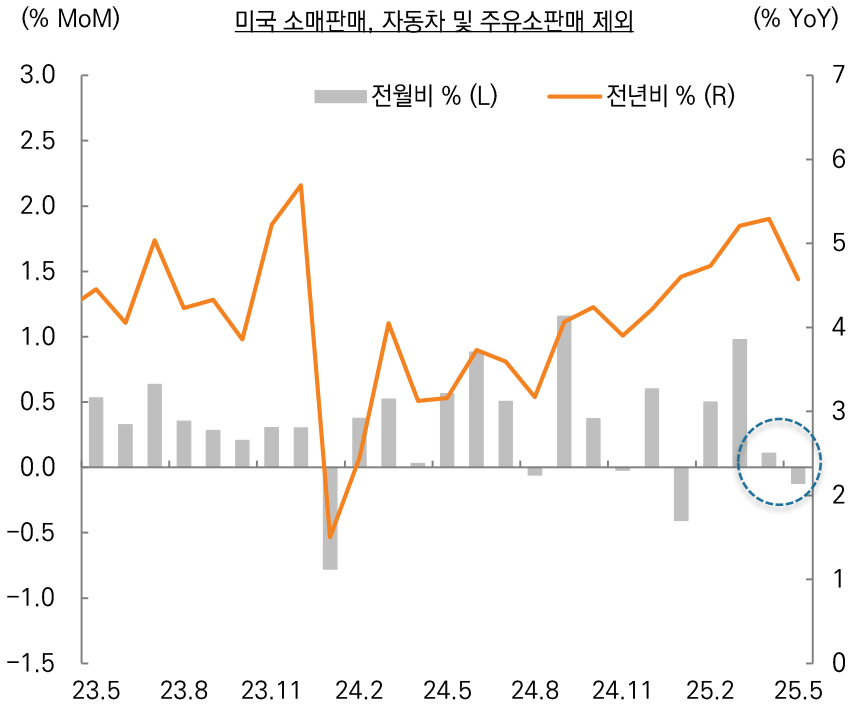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하반기 미국 소비 둔화 예상

인플레 상승으로 가계 구매력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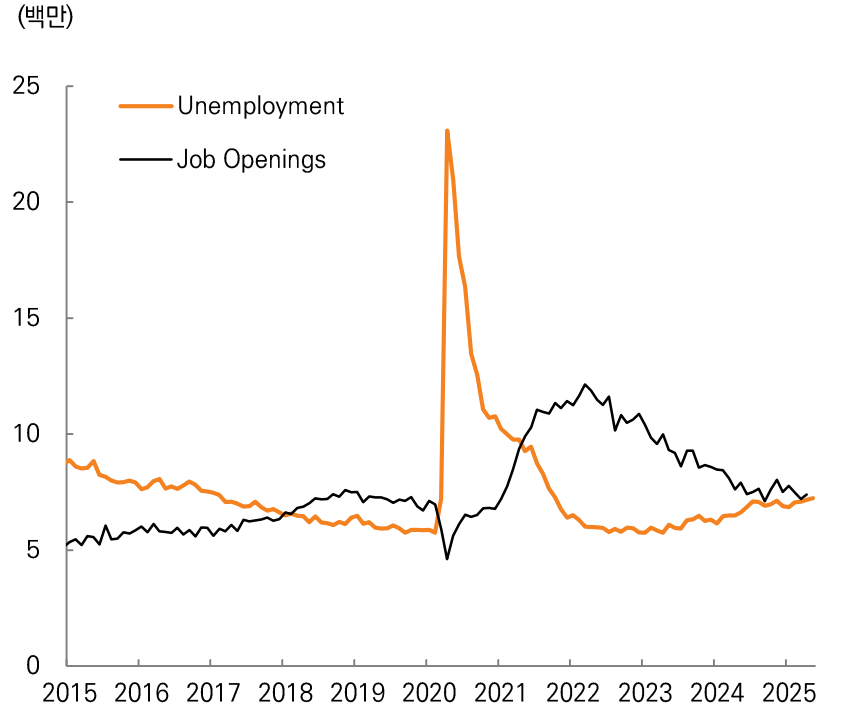
- 2사분기 미국 소매판매 부진. 아직까지는 1사분기 소매판매가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동한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음.
- 하지만, 하반기에 우려하는 대로 인플레가 오른다면 실질 소비 위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AI 투자 확대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인력 신규 채용이 약화되고 있음. 더불어, 노동력 수요 초과 상황이 해소되면서 임금 상승세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 상승으로 실질 구매력 위축이 진행될 전망.

미국 핵심 소매판매는 최근 2개월간 정체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구인건수와 실업자수가 이제 거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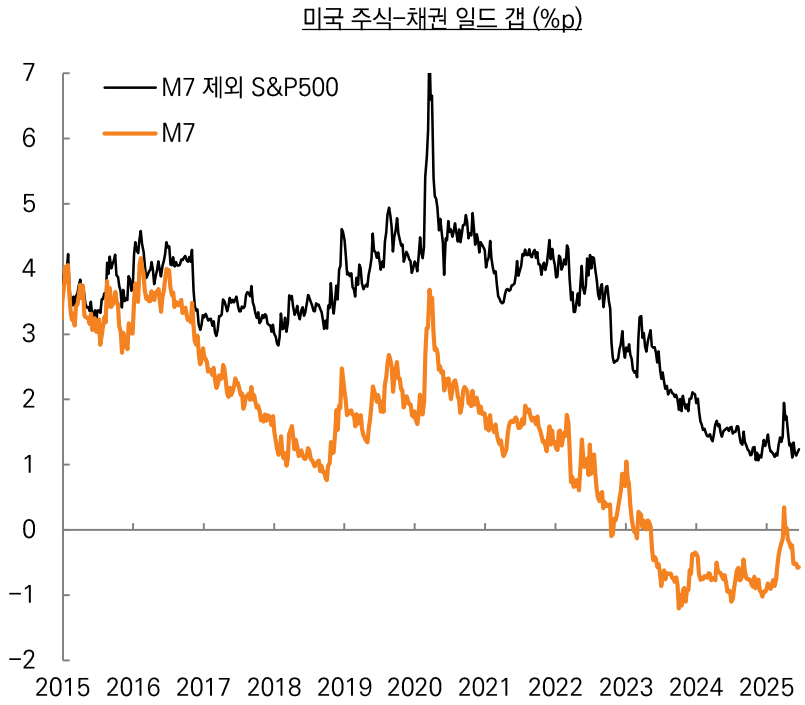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주식은 하반기에도 기대수익률 낮게 유지, 비중축소 의견

밸류에이션 부담과 연준 금리인하 지연,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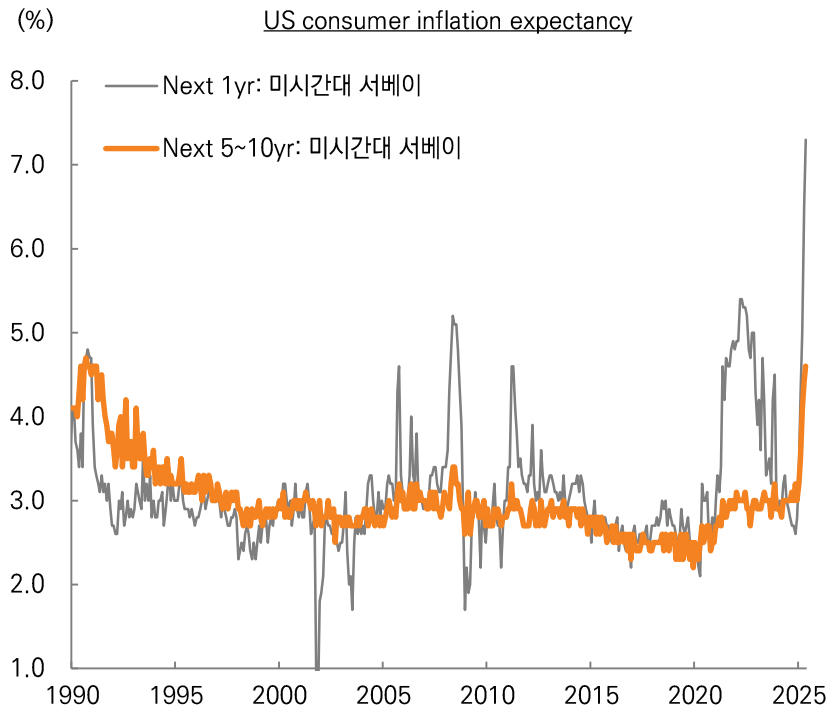
- 빅텍 주가가 좋은 것은 관세 협상 낙관론 및 최근 이익 전망치 상향 움직임과 연계됨.
- 하지만, 미국 경제가 하반기 인플레 상승과 소비 위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이익 전망 상향이 계속될지 의문.
- 연초 주가 급락 전 미국 주식의 가장 큰 문제는 비싸다는 것. 주가가 다시 복원되었으므로 가격 부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음. 실적 개선 기대는 이미 반영된 상황이므로 경기 및 통화정책 리스크에 민감도 높을 것. 미국 주식에 1년 기대수익률 5% 미만으로 낮게 유지.

주식-채권 일드갭: M7은 다시 마이너스로, M7 제외 시 사상 최저 수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30년 만에 자극된 장기 기대 인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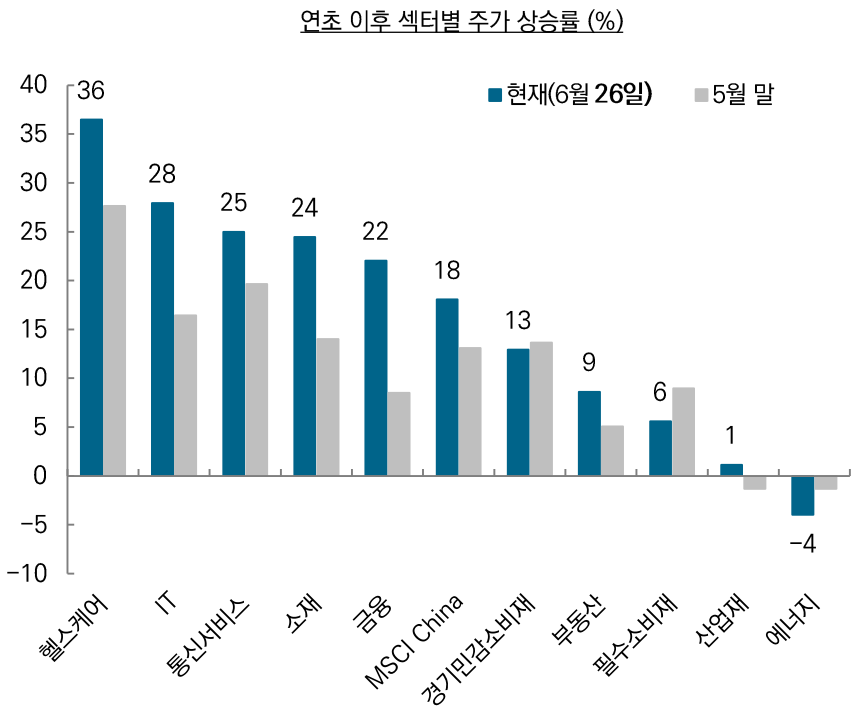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주식: 성장주 중심 금융장세

초저금리로 가면서 성장주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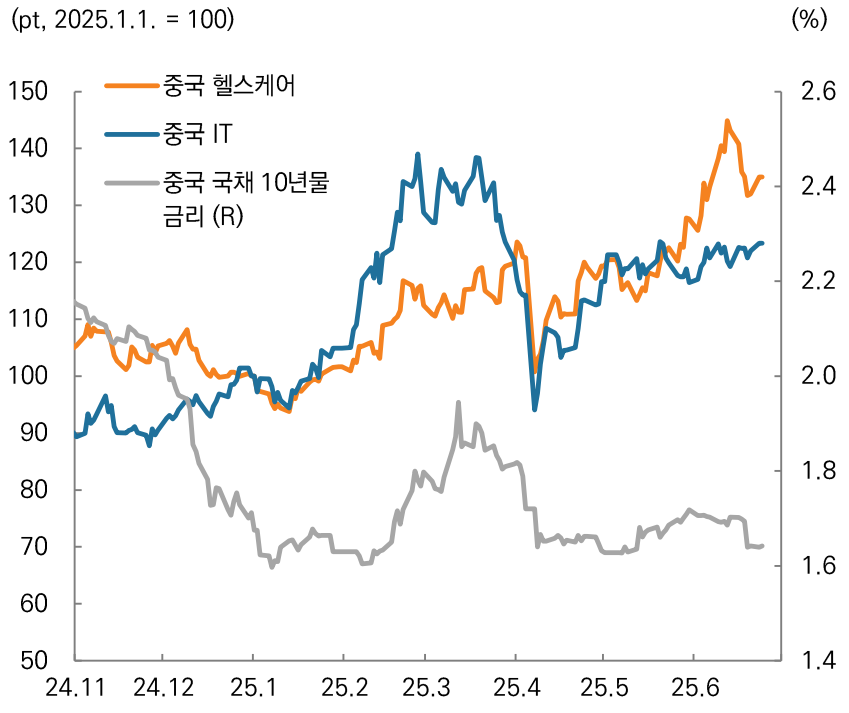
- 중국은 소비자물가가 소폭의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지도 모르는 경계선에 위치, 유동성 확대 기조.
- 이에 따라, 중국 국채 금리는 역사적 저점에 위치, 성장주 스타일에 유리한 환경. 연초에는 IT 테크 주가 강세, 지금은 바이오테크 주가 강세.
- AI, IT, 바이오 등에서 미국과 기술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 전개. 이는 저금리 환경과 더불어 이들 섹터가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헬스케어 강세 심화, 다음으로 IT, 통신서비스, 최근에는 금융 강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진한 파랑은 연초 이후 6월 26일까지, 회색은 연초 이후 5월 말까지 수익률을 표시

중국 저금리 상황에서, IT 강세 이후 헬스케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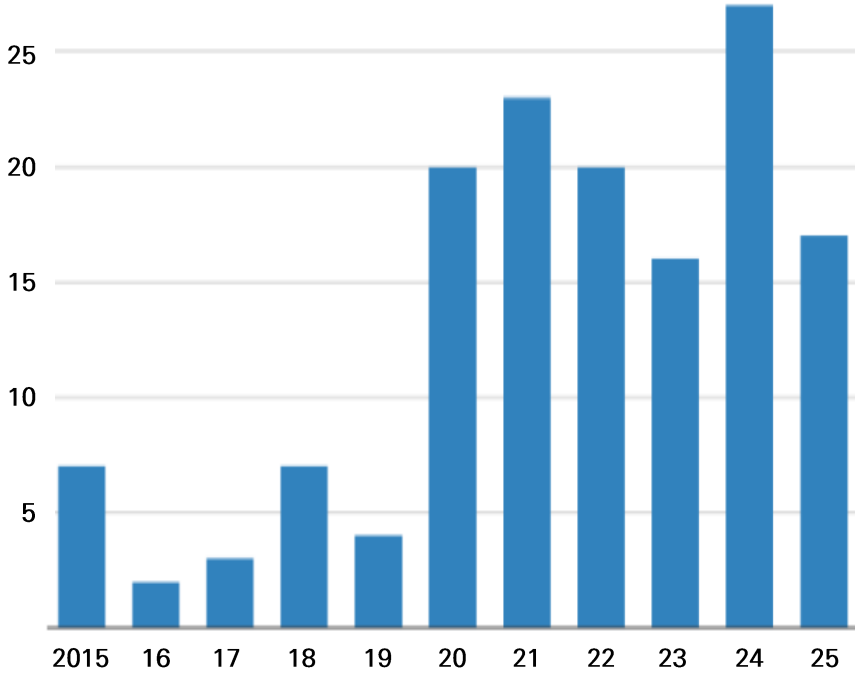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주식: 바이오와 AI

중국은 바이오와 AI 테크 중심으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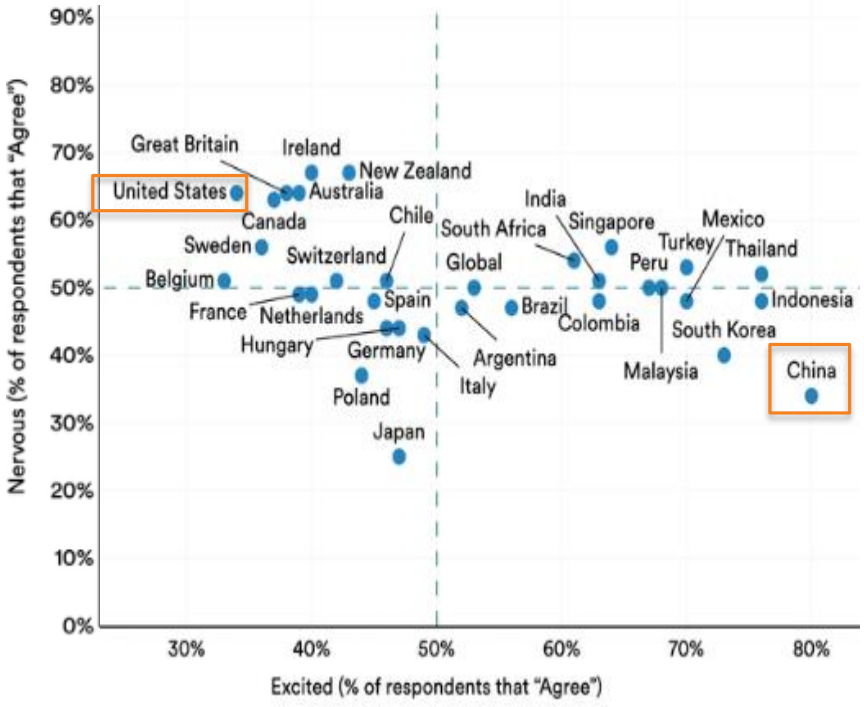
- 미국 언론사들은 중국 바이오 산업 성장세를 주목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들을 게재해 오고 있음. WSJ에서는 AI 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에서도 '딥시크 모멘트'가 있음을 언급.
- 미국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채우기 위해 중국 신약 개발 성과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음. 양국간 라이선스 딜 가파른 증가세.
- 한편, 딥시크 쇼크 이후 중국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AI에 대한 전향적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중국은 AI 산업 성장에 있어 유리한 토양을 갖고 있어, 미국 대비 후발 주자지만 향후 성장세에 대해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 수 있을 전망.

미·중 신약 라이선스 딜 증가



자료: Evaluate's biomedtracke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올해 데이터는 6월 17일자 기준이므로, 연 환신 시 지난해보다 더 빠른 페이스

AI에 대해 중국인들이 매우 전향적, 미국인들은 대조적인 위치에 있음



자료: The 2025 AI index report(Stanford Univ),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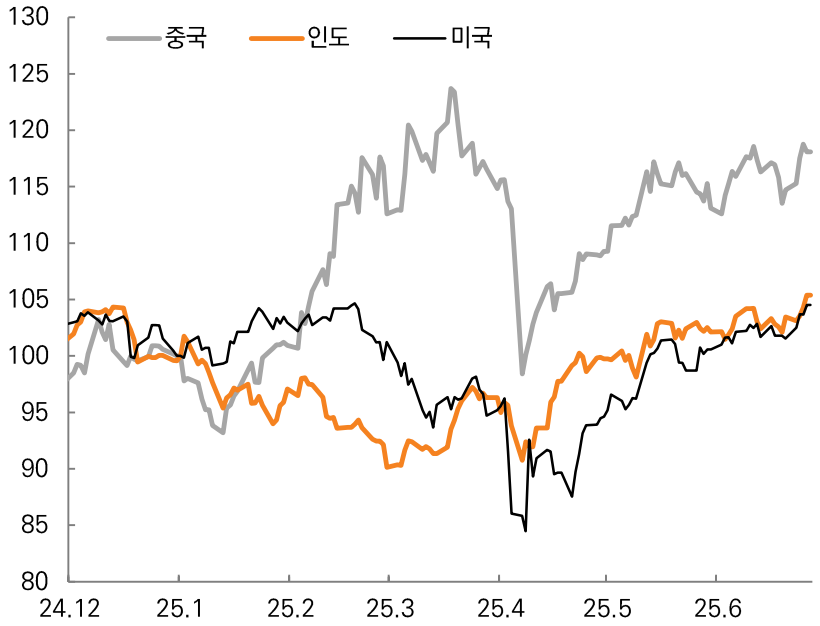
인도 주식 비중확대 의견 유지

미국 대비 낮은 변동성, 미국과 비슷한 수익률

- 인도 증시는 장기적으로 전세계 1, 2위 수익률을 미국과 다투고 있음. 올해도 인도 증시는 미국과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는 중.
- 6월 인도 중앙은행은 시장 예상과 달리 50bp 인하를 선택. 이에, 올해 성과 부진했던 부동산 섹터 주가가 빠르게 반등.
- 인플레 여건상 금리인하는 하반기에도 상당 폭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반기 성과가 부진했던 IT와 헬스케어 주가 반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인도 증시 강세 전망 및 비중확대 의견 유지.

인도 증시는 미국 증시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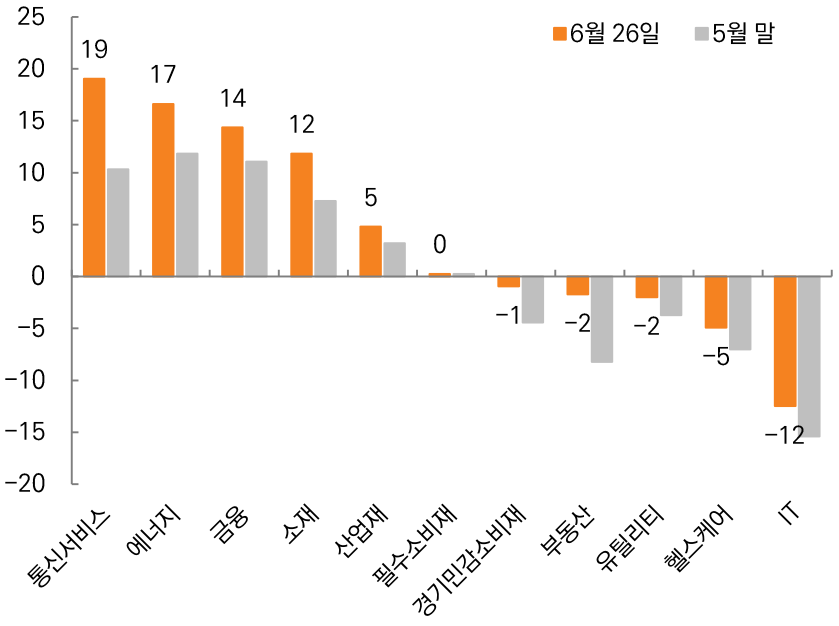
주가지수 (pt, 2025.1.1 = 100)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MSCI 국가별 지수 사용

인도 증시는 수익률 전반적 개선, IT 및 헬스케어 수익률 부진 지속

섹터별 연초 이후 주가 상승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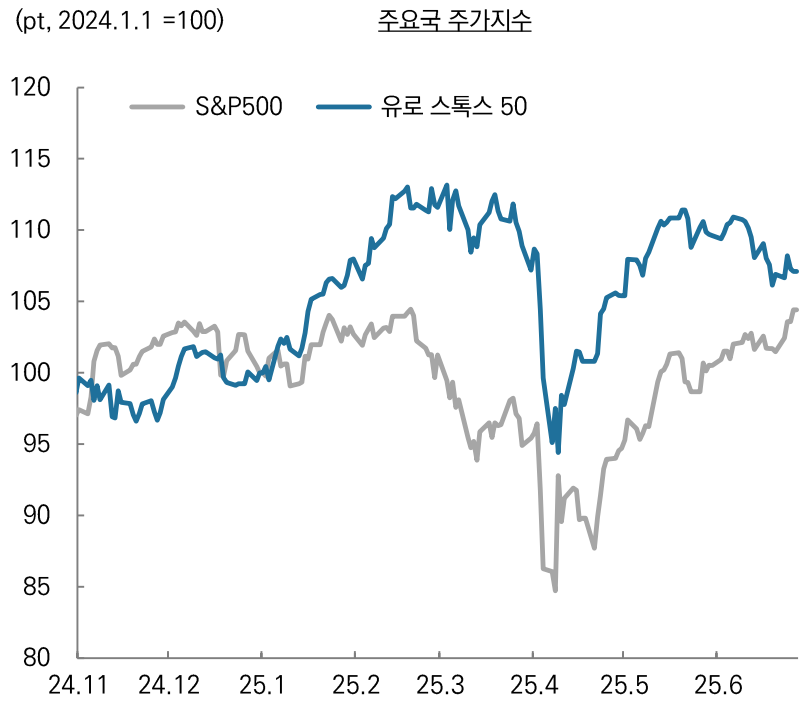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유럽 주식에 중립적

벤치마크 비중 정도로 투자하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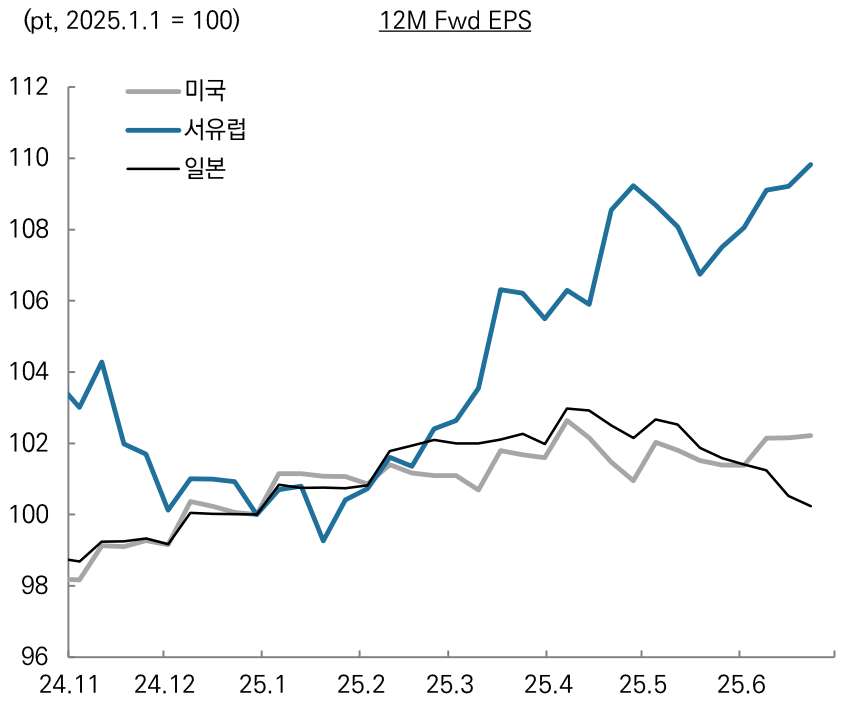
- 연초 수익률이 좋았던 유럽 증시는 4월 이후에도 빠르게 반등했으나 3월 고점 대비 더 오르지는 못하고 있음.
- 더욱이, 6월에는 미국과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유럽 증시는 조정 양상을 보였음.
- 통화정책은 증시에 우호적: ECB가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해서 1년간 기준금리를 200bp 인하했고 하반기에도 50bp 추가 인하 예상.
- 유럽 기업 이익 전망 상승세는 유럽 주가 조정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

최근 유럽-미국 증시 수익률 격차 축소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유럽 기업이익 전망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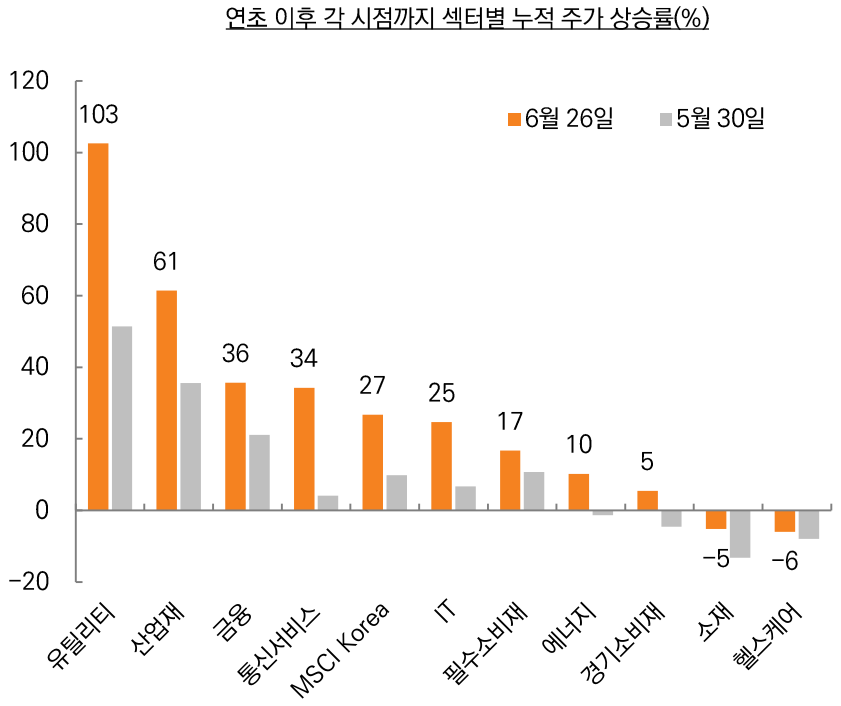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주식에 중립적

정책 기대감 긍정적, 하지만 일부 테마 섹터 주가 상승 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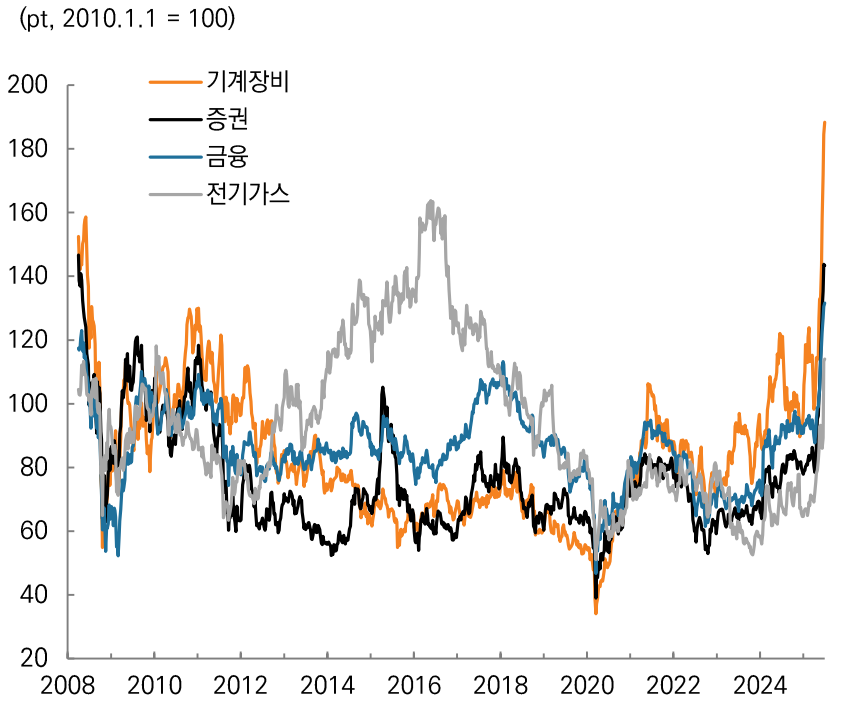
- 연초 이후 한국 증시는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했으며, 6.3 대선 이후 급등 양상.
- 6월 중 유틸리티, 산업재, 통신서비스 섹터 등에서 높은 주가 상승률 시현: 유틸리티는 원전 기대감이 크게 작동했고, 산업재는 원전과 방산 두 테마가 강했던데 따른 것이며, 통신서비스는 AI 정책 기대 반영. 증권업과 반도체 섹터도 업황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음.
- 하지만 정책 기대에도 불구하고 원전이라든지 국내 AI,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주가 상승은 실체 대비 과도해 보여 주의 필요.

최근 유럽-미국 증시 수익률 격차 축소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기계장비, 증권, 금융(은행+지주) 섹터 주가는 2010년대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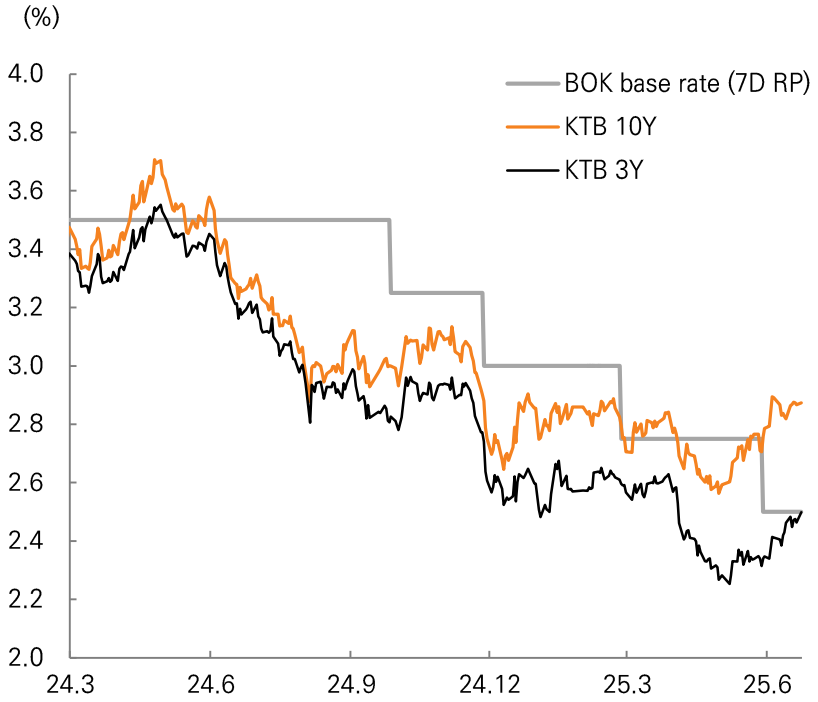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채 긍정 관점 유지

듀레이션 다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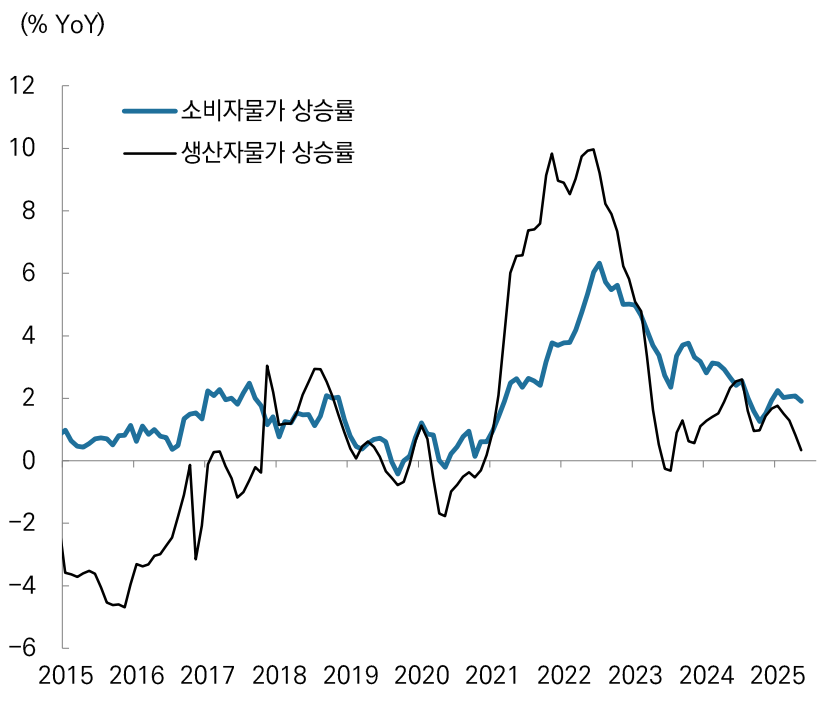
- 대선 이후 추경 확대, 국내 주가 가파른 상승세 등이 국내 금리 상승세에도 기여.
- 한은 기준금리는 연말 2%까지도 인하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가계부채 증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 등으로 관련 기대감은 후퇴. 하지만, 금리인하가 끝난 것은 아니며, 경기 및 인플레 여건상 7, 8월 한 차례 금리인하는 여전히 기대 가능.
- 하반기 이후 경기가 조금 개선될 수 있지만 인플레를 끌어 올릴 수준은 아닐 것.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된 점 활용서 장기물 중심 국채 비중 확대 전략 제시.

국채 장단기 금리차 확대, 수익률곡선 정상화에 가까운 상황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소비자물가 전년비 2% 아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더 낮아지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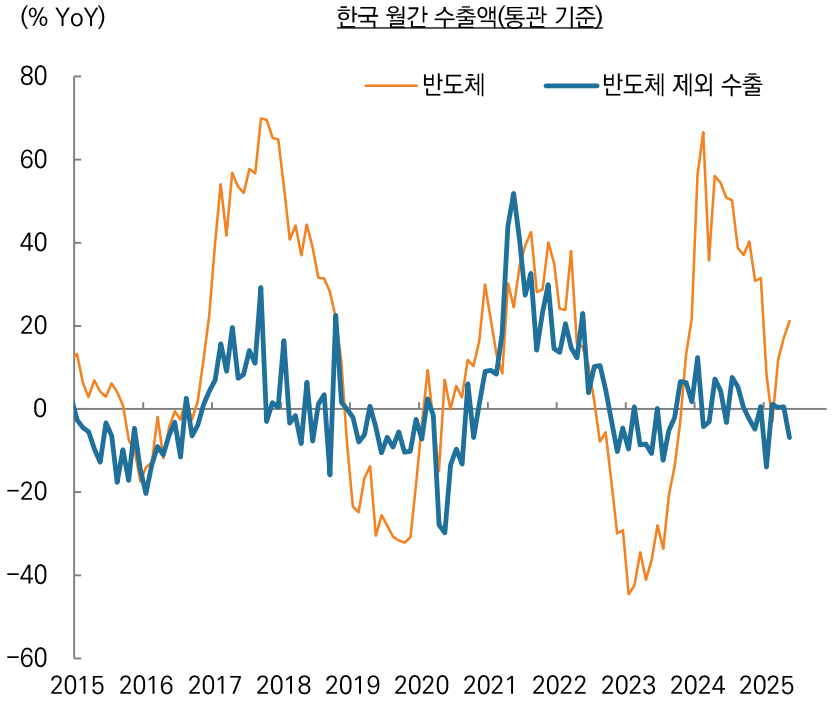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채 긍정 관점 유지 (2)

추경 효과는 단기적, 국채 금리는 다시 하락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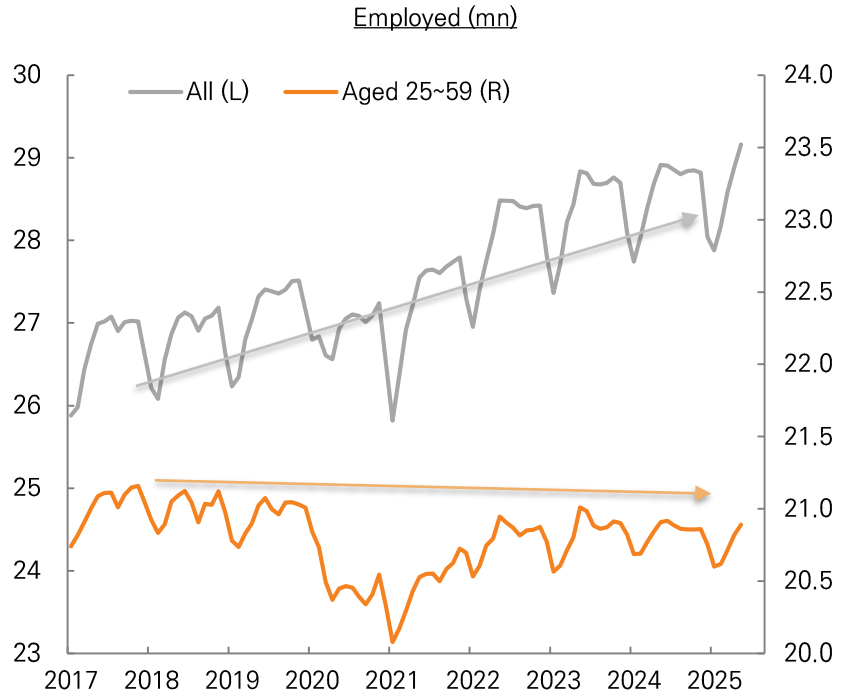
- 추경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하지만,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순환 구도를 형성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 AI 투자 확대 기조 하에서 일자리 증가가 제한되는 면이 강함. 한국은 또한 제조업 비중이 크지만 반도체 외 기존 주력 산업에서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수출: 반도체는 버티지만 반도체 제외하면 부진한 상황 지속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총 취업자수는 증가하지만, 활성 연령층 취업자수는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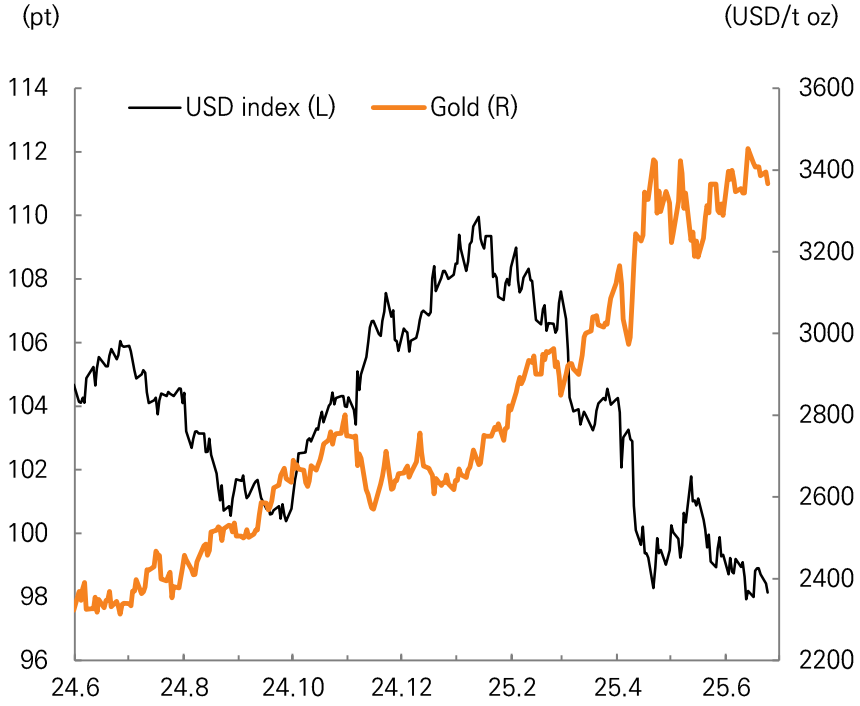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Gold 비중확대 의견 유지

달러 약세 속 금값 강세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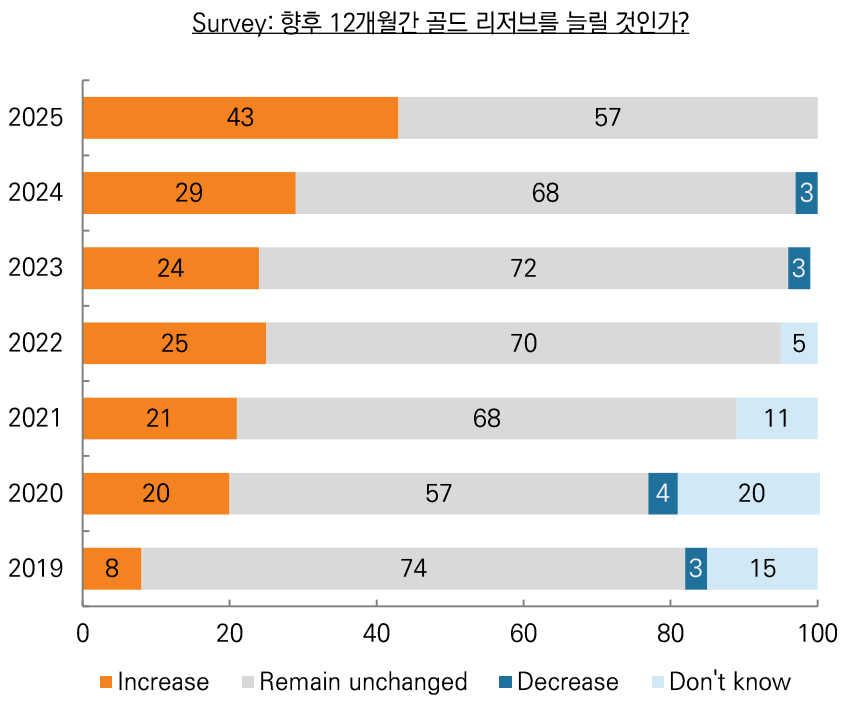
- 연초 이후 달러 인덱스는 10% 넘는 하락세. 중국 등 탈 달러 움직임, 미국채에 대한 신뢰 저하(미국 신용등급 강등), 미국 주식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미국의 해외 금융자본 흡수력이 약해진 탓.
- 금은 달러 대체자산으로서 수요 증가.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액으로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음.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등이 있고 근래에는 폴란드가 특히 적극적.
- Gold Council의 서베이에 따르면, 금 보유량을 확대하겠다는 중앙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계속 늘어났으며 올해 특히 큰 폭 증가.

올해는 달러 약세 지속되고 금값도 지속 상승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액에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려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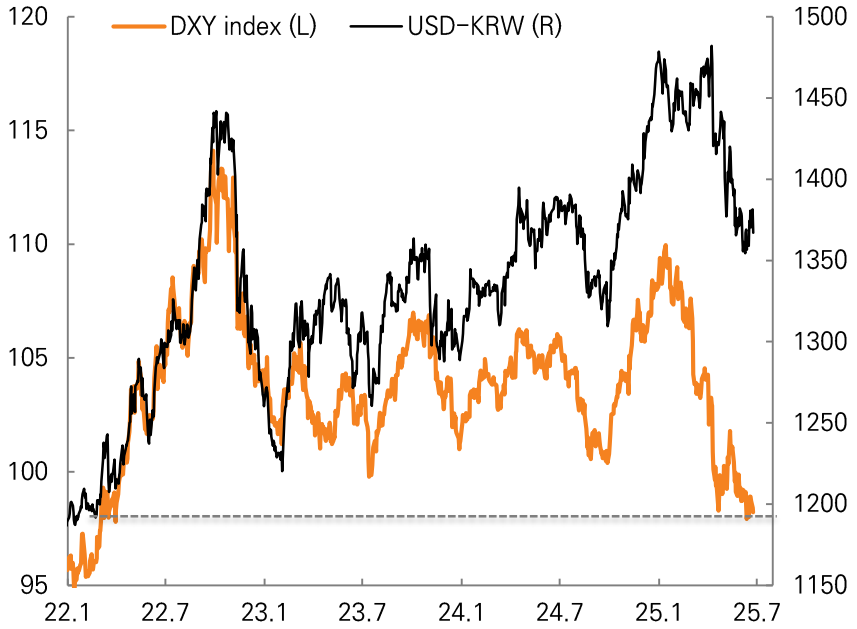
자료: Gold Counci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원화 저평가 완화 진행 중

주식투자금 유출 등으로 인해 원화 가치 회복이 빠른 속도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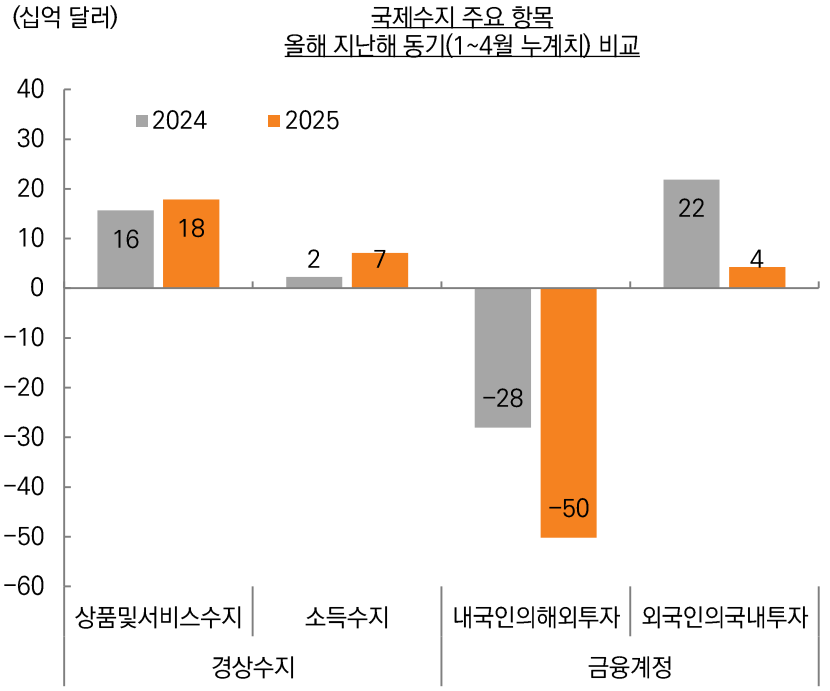
- 원화 가치가 다소 회복되었지만, 현재 달러 원 환율은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낮아진 것. 달러 인덱스가 2022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원화 가치 회복은 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올해 1~4월 경상수지 흑자 누계치는 지난해 동기보다 더 커졌으나, 금융계정에서 자금 순유출 규모가 이를 압도(외환보유액 감소).
- 원화 가치 상대적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계정 중에서도 내국인의 해외투자금 유출 속도가 관건. 1~4월에는 그 규모가 조금 이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 기대되는 반면, 경상수지 흑자는 하반기가 더 커지는 계절성이 있음 → 원화 회복 전망 유지.

달러 인덱스는 '22년 3월 이후 최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4월 경상수지 흑자 지난해보다 커졌으나 금융투자금 순유출이 더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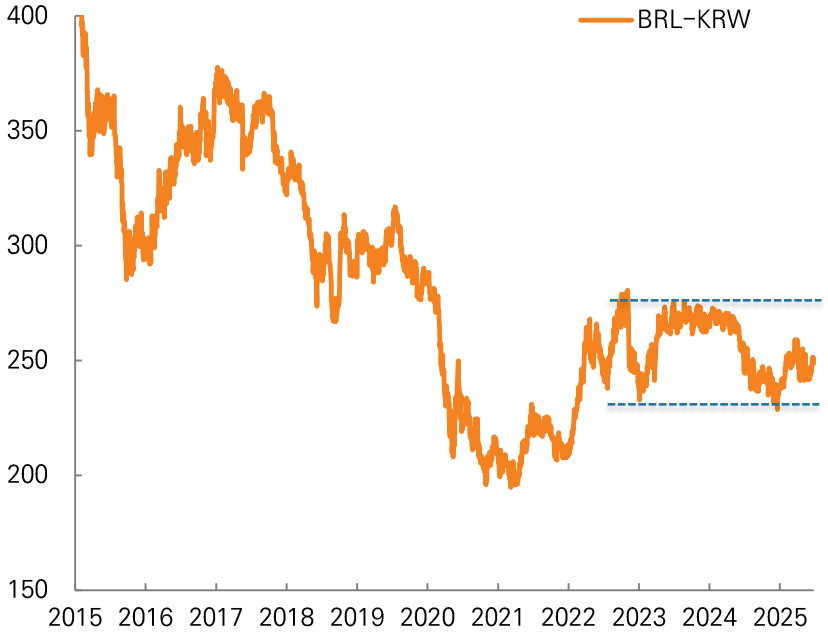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브라질 채권 긍정적

헤알화 가치 안정화 + 15% 내외의 단기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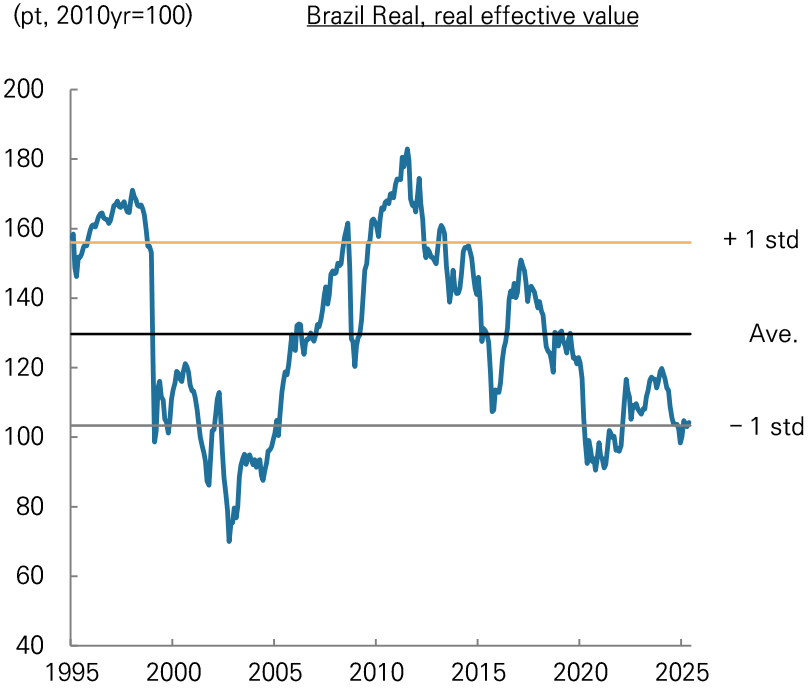
- 브라질의 고질적인 약점인 재정 건전성 이슈는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원화 대비 헤알화의 상대 약세 리스크는 상존.
- 하지만, 달러 환율이 1,470~80원일 때에 비해 원화의 상대적 절상 잠재력은 많이 줄어들었음.
- 약간의 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브라질 채권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15% 내외의 절대 고금리 매력과 세금 감면 혜택 때문.
- 재정 건전성 이슈 감안해서 단기 2년물 국채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일 것.

브라질 헤알화와 원화의 상대 가치는 2023년 이후 안정화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헤알화도 역사적 저평가 상황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